

## Governance Opinion

### < 누구를 위한 공익법인? >

**민** 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윤 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준의 수익 활동이 가능하지만 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의 감면이나 경비의 보조 등 법적 지원과 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 역시 제 아무리 설립 취지도 좋더라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공익법인이 될 수도 있고 사익법인이 될 수도 있다.

뜻은 드높았으나..

동국제강의 장경호 창업주의 4남인 동국제강의 故 장상철 전 사장의 후손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그의 아호(세연)을 따 1991년 세연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2000년 철 생산지였던 충북 음성에 철 박물관을 건립했다. 세연문화재단은 그 외에도 전통 제철 복원실험, 대장간 조사 등 철강문화 발굴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세연문화재단 설립시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기부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비고
이정옥	故 장상철 전 사장의 배우자
장세한	故 장상철 전 사장의 차남
장세훈	故 장상철 전 사장의 장남
장원영	故 장상철 전 사장의 형이 故 장상준 전 동국제강 회장의 손자
장은주	故 장상철 전 사장의 차녀
장인경	故 장상철 전 사장의 장녀

앞에서와 같이 세연문화재단은 故 장상철 전 사장의 미망인과 자녀들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했으며, 현재 대표는 이동식 이사로 되어 있으나 장녀인 장인경 씨가 유일한 상임이사로 사실상 재단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세연문화재단은 2009년 돌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부산주공의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하며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된다. 2009년 3월 세연문화재단과 세연아이엠은 부산주공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박철규 등으로부터 지분 약 25.45%를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서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당시 기존 최대주주였던 박철규의 특수관계인이자 부산주공 임원이었던 한선시의 지분까지 포함해 세연문화재단 등은 최대주주로서 약 32.61%의 지분을 행사하게 된다. 당시 지분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 주식수	주당 취득금액	총 취득금액	비고
세연아이엠	1,112,105	6,000	6,672,630,000	
세연문화재단	720,000	6,000	4,320,000,000	
합계	1,832,105	-	10,992,630,000	

세연아이엠과 세연문화재단은 약 11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부산주공의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했으며, 지분공시를 통해 세연아이엠과 세연문화재단은 각각 보유하고 있던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체는 조금 다르다.

세연문화재단과 함께 부산주공의 경영권을 취득한 세연아이엠은 경영권 취득 직전인 2009년 2월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5천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약 67억원의 자금으로 부산주공의 지분을 취득했다. 5천만원짜리 신설법인이 무슨 수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

세연아이엠은 대표이사인 장세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이다. 그리고 장세훈은 앞서 언급된 故 장상철 동국제강 전 사장의 장남이자 세연문화재단 재산 출연자이며, 세연문화재단 장인경 이사와는 남매지간이다.

그리고 세연아이엠의 부산주공 취득자금은 바로 세연문화재단에서 나왔다. 세연아이엠은 2009년 70억원의 장기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입처는 다름아닌 세연문화재단이다. 결국 부산주공 취득자금 110억원은 전부 세연문화재단에서 나왔으며, 장세훈은 세연문화재단 자금으로 부산주공의 대표이사 자리를 꿰차게 된다. 장세훈의 세연아이엠은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부산주공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한

셈이다.

### 세연아이엠의 부산주공 빌붙기

세연아이엠은 설립 이듬해인 2010년부터 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실제 이익 규모는 1~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자산 대부분이 부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설립과 동시에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미진한 이익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세연아이엠의 주된 사업이 철강, 철근, 고철 도소매업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동국제강 등 인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매출을 키울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연아이엠은 부산주공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 일부를 의지하기 시작한다. 2012년 세연아이엠의 총 매출은 약 602억원 수준이었는데 그 중 약 66.5억원을 부산주공과의 거래를 통해 창출한다. 그리고 2013년 세연아이엠의 총 매출은 228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중 부산주공에 대한 매출은 약 71억원으로 세연아이엠의 부산주공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부산주공이 세연아이엠과의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주공의 최대주주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산주공은 2013년 9월 세연아이엠에 6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결정을 했다. 물론 2013년 말 기준 부산주공의 총 자산은 2,351억원으로 총 자산 대비 60억원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부산주공의 순자산 등을 감안했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부산주공의 2013년 말 기준 총 부채는 약 1,893억원으로 실제 자기자본은 약 458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세연아이엠에 대한 대여금 60억원은 자기자본의 약 13%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이다. 게다가 부산주공은 2012년부터 주조2공장 준공과 부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수백억원의 자금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3년 말 기준 장단기 차입금만 1,090억원에 달하며, 2013년 한 해 동안 이자비용만 57억원을 지출할 만큼 상당한 자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매출은 1,900억원이 넘지만 2012년과 2013년 연속해서 20억원과 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자체적인 자금 창출 능력도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부산주공은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60억원의 자금을 최대주주인 세연아이엠에 지원했다. 세연아이엠은 왜 부산주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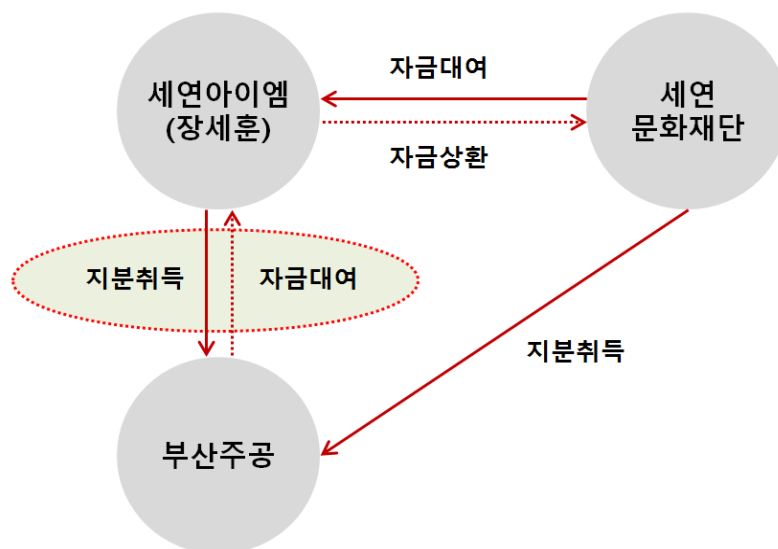
2013년 세연아이엠은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차입한 63.5억원(최초 70억원을 차입했으나 2012년 6.5억원을 상환하였다.)을 일시에 상환하게 된다. 실제 만기일은 2015년 3월이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

지 갑작스레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게다가 세연아이엠은 2013년 갑자기 8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게 되는 등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세연아이엠은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되갚는 동시에 부산은행과 부산주공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조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세연아이엠의 갑작스런 적자 발생 원인이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이 602억원에서 228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실제 원인은 2013년도에 갑자기 증가한 세금과공과 비용에서이다. 2012년 세연아이엠의 세금과공과 비용은 겨우 290만원 수준이었는데 2013년 갑자기 6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당기순손실로 연결되어 세연아이엠을 뒤흔들게 된 것이다.

결국 세연문화재단 자금으로 부산주공을 인수한 세연아이엠은 다시 부산주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며 부산주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세연아이엠과 장세훈은 사실상 자기자금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물론 장세훈은 장내매입 등을 통해 약 67만주, 5.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경영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무자본 M&A의 또 다른 모습

과거 코스닥 시장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M&A 기법 가운데 무자본 M&A라는 개념이 있었다. 인수 대상 기업이나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 혹은 취득 예정 지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와 기업을 인수하는

기법을 말한다. 적은 자금으로 차입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지만 막대한 채무를 안고 M&A를 시도해야 하므로 횡령, 배임이나 주가 조작 등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무자본 M&A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변형된 무자본 M&A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세연아이엠의 부산주공 인수 역시 개념적으로는 무자본 M&A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연아이엠이 자금을 차입해 올 때 부산주공의 자산이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세연아이엠은 자기 자금 없이 전액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했으며, 부산주공으로부터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산주공의 자금으로 부산주공을 인수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연아이엠이 알 수 없는 비용 지출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세연아이엠의 경영 정상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산주공은 세연아이엠에 대여해 준 자금에 대해 회수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주공이 부실해진 세연아이엠을 회생시키기 위해 지원을 하기 된다면, 부산주공 역시 동반 부실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라와 만도의 사례 등 우량한 자회사가 부실한 모회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잠재적 리스크로 인해 시장의 평가가 악화되는 사례는 충분히 많이 있어왔다.

세연문화재단 역시 이러한 부실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특수관계자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여하여 편법적인 경영권 인수 과정에 참여했으며, 스스로도 막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사실상 세연아이엠 및 장세훈과 동일한 이해관계에 위치했다.

부산주공은 과거 동국제강 그룹에 속해 있었다. 1998년 말 기준 부산주공의 최대주주는 동국제강 명예회장이었던 故 장상태 회장과 그의 형제들 및 조카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분율은 약 31%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99년 중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대주주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철규와 경영진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분율 역시 7.25%로 급감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동국제강 그룹에서 분리된 듯한 모양새를 취했으나 박철규 대표이사는 故 장상태 회장의 조카(누나의 아들)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동국제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걸로 추정된다. 이후 부산주공은 취약한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완하기 위해 16%가 넘는 막대한 자사주를 취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철규 대표이사와 한선시 부사장 등도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키워나갔다. 그러다가 2009년 중 부산주공은 다시 동국제강의 장 氏 일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연문화재단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4대에 걸쳐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업집단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

도 수많은 기업들이 동국제강의 울타리 안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 지배구조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산주공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오너 일가의 행태는 선대의 위대한 업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올바른 경영이 무엇인지 투명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산주공의 경영진과 오너 일가는 다시 한 번 진지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게 얻은 금뱃지를 반납해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새누리당 성완중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을 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라고 문제 삼았고 결국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성완중 의원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1년 12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2011년 11월 지역구민들이 참석하는 가을 무료음악회를 연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성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가 되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된 것이다.

성완중 의원은 경남기업의 오너로 잘 알려져 있다. 경남기업은 축적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와 중동,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축, 토목, 플랜트, 전기, 환경/에너지 사업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건설기술과 시공품질을 인정받은 잘 알려진 건설전문기업이다. 성완중은 2004년 대아건설을 통해 경남기업을 인수했으며, 경남기업과 대아건설 합병을 통해 경남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2009년 경남기업을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 등급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1년 워크아웃을 조기종결 해내는 등 저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4년 다시 위기를 맞으면서 최근 신한은행과 다시 한번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성완중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마저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3월말 기준 성완중은 본인과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아레저산업, 그리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포함해 약 19.6%의 경남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2011년 11월의 가을 무료 음악회는 다름아닌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졌다. 서산장학재단은 1990년 성완중의 기부로 31억원의 기금 조성하고 함께 재단이 설립되었다. 그 후 장학,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서산장학재단의 총 자산은 약 44억원으로 대부분은 경남기업 보유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산장학재단 설립은 성완중의 기부로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 재단의 활동자금은 대부분 경남기업을 통

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약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경남기업은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기부금으로 약 53.6억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2008년 서산장학재단은 경남기업으로부터 약 29.3억원의 기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직후인 2009년 1월 경남기업은 건설업체 신용위험 평가 등급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바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 받았다.

그리고 2010년 경남기업은 다시 약 19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해 서산장학재단은 약 24억원의 출연금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서산장학재단이 출연금의 원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남기업을 통해 출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경남기업은 25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했으며, 같은 해 서산장학재단은 경남기업으로부터 약 24.5억원의 기부금을 출연 받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1년 경남기업은 190억원의 당기순이익에 약 15.6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보다 기부금이 157%나 더 많은 상황이다. 2012년 경남기업은 23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기부금은 거의 없었다. 역시 서산장학재단 역시 같은 해 기부금 수입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2013년 경남기업은 약 3,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으며, 더 이상 기부금을 지출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09년을 제외한 3년 동안 경남기업은 배당보다 더 열심히 서산장학재단에 기부를 해 왔다. 물론 법인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에 대해 절대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주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전가하였으며 그렇게 함께 고생한 주주들에게 배당은 인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는 아낌 없이 기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맛이 씹쓸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경남기업의 기부가 집중되던 2011년 서산장학재단은 이사장 성완종의 '돈 선거'에 연루되기까지 했으니 장학재단의 높은 뜻이 그 빛을 바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경남기업 주주들 입장에서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성완종이 경남기업을 통한 기부에 대해서는 호탕했지만 자신의 개인회사를 통한 기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했다는 사실이다. 대아레저산업은 성완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 비상장 법인이다.

2008년 대아레저산업은 약 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통해 주당 2천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대아레저산업의 지분 약 72%를 보유한 성완종은 약 15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2008년 대아레저산업의 기부금은 고작 274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1년 대아레저산업은 약 2,190억원의 매출에 3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결손금도 한 번에 해결하면서 약 182억원의 이익잉여금까지 쌓았다. 하지만 같은 해 대아레저산업의 기부금은 겨우 264만원이었다. 그리고 2012년 대아레저산업은 다시 162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기부금은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2012년 경남기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기부금을 지출할 여력이 없었고 서산장학재단 역

시 기부금 수입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대아레저산업은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다.

사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온 성완중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잣대에 어찌면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오너 경영자가 워크아웃이라는 시련을 함께 감내하고 견뎌낸 주주들을 외면하고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데 더 열심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경남기업의 주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자신의 개인회사에서는 막대한 배당까지 챙기면서 기부금에는 인색했던 이중적인 잣대로는 쉽사리 이해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 무엇을 위한 재단인가?

광동제약은 1963년 설립되어 한방 과학화라는 창업이념으로 독창적인 의약품 개발과 우수한 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잘 알려진 제약회사이다. 특히 광동제약은 이른바 '최씨 고집'이라는故 최수부 회장으로 깊이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광동제약의 창업주인故 최수부 회장이 골프장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며 광동제약의 지배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故 최수부 회장이 작고하기 전인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광동제약의 최대주주는 지분 6.82%를 보유한故 최수부 회장이었으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약 17.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아들인 최성원 현 대표이사의 지분은 약 5.07%로 자신의 개인회사인 광동생활건강의 지분 2.29%를 더 하더라도 안정적인 승계 구도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최 회장이 세상을 뜨면서 광동제약의 최대 이슈는 상속세와 안정적인 승계, 그리고 경영권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2014년 3월말 주주 구성을 통해 광동제약이 선택한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

### [2014년 3월말 주요 주주 구성]

성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최성원	3,455,604	6.59	대표이사
가산문화재단	2,621,042	5.00	
광동생활건강	1,600,000	3.05	최성원의 개인회사

광동제약의 최대주주는 최성원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약 17.79%로 전체 지분율은 거의 동일하나 주요 주주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 중 핵심은 다름아닌 가산문화재단이다. 가산문화



재단은 故 최수부 회장이 자녀 등에게 일부 상속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약 228만주, 4.35%의 지분을 전락 상속받으며 5%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급격하게 부상한 것이다.

가산문화재단은 지난 2007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립되었으며 故 최수부 회장이 주식 약 8억원, 광동제약이 현금 3억원을 출연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매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산문화재단의 활동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본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가우뚱하게 된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산문화재단의 장학금 등 사업비용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연도	자산총액	총 사업비용		장학금	
		금액	자산 대비	금액	자산 대비
2008	1,113,851,015	41,747,757	3.7%	18,827,440	1.7%
2009	1,614,063,292	27,529,497	1.7%	26,432,320	1.6%
2010	2,807,910,020	29,891,880	1.1%	25,080,480	0.9%
2011	2,851,444,206	79,180,986	2.8%	25,400,000	0.9%
2012	3,460,866,301	90,522,835	2.6%	43,000,000	1.2%
2013	4,482,378,380	86,405,500	1.9%	82,400,000	1.8%

자산 규모는 차근차근 증가해나가는 반면 장학금 지급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는 사업비용 수준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로 대웅제약의 대웅재단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 약 77.8억원에 장학금 7억원, 문화사업지원비 4.7억원 등 총 11.7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 전체 자산 대비 약 15%의 사업비를 지출했으며, 유한양행의 유한재단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 약 211억원에서 장학금과 교육사업지원, 사회복지사업, 사회봉사자시상 및 의연금 등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 자산 대비 약 9.4%의 사업비를 지출했다.

반면 가산문화재단은 광동제약 등으로부터 꾸준히 기부금을 출연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배당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가산문화재단은 단기금융상품만 3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와 배당수익으로 약 1억원의 수입을 확보했다. 광동제약은 가산문화재단에 2009년과 10년, 그리고 2013년 3차례에 걸쳐 총 27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고 최초 설립 당시 출연한 3억원까지 더할 경우 총 30억원의 자금을 출연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가산문화재단의 총 자산은 약 45억원이며, 그 중 설립시 故 최수부 회장이 출연한 약 8억원과 2012년 약 5.6억원의 주식을 기부한 모과균(현 광동제약 부사장)을 제외하면 현재 자산의 2/3는 광동제약이 조성한 셈이 된다.

그렇게 광동제약에 의해 성장한 가산문화재단이 이제 광동제약 오너들을 위한 승계 및 기업 지배구조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산문화재단이 故 최수부 회장의 광동제약 주식 상당 부분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성원 대표이사가 부친인 최 회장의 지분을 전량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산문화재단을 통해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세 부담을 덜어냈다는 것이다. 세법상 가산문화재단과 같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익법인이 사회 전체를 위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가산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저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장학금 지급 등 실제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승계 및 경영권 장악을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게다가 그러한 활동에 주주 전체에게 분배되어야 할 상당한 자금이 기부금의 가면을 쓰고 흘러 들어갔다.

가산문화재단은 故 최수부 회장의 지분을 증여 받아 급격하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높았던 선친의 뜻을 올바르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가산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본래의 정신과 목적을 충실히 실천하고 달성해야 할 것이다.